

# 에클레시아와 에스포지토의 면역 개념에 입각한 신앙공동체 이해의 새 지평

양승준(협성대학교/초빙교수)

wesley4865@uhs.ac.kr

## 한글 초록

본 연구는 이기성과 폐쇄성으로 사회적 공신력을 잃어가며, 전염병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신앙공동체인 교회를 이해하는데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여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첫째로, 교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인 '에클레시아'의 개념과 의미를 역사적, 성서적, 신학적으로 연구하면서, 이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한 바울의 의도를 탐구하였다. 둘째로,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면역학적 개념으로 풀어간 에스포지토의 코뮤니타스와 이무니타스의 고찰을 통해 신앙공동체의 새 지평을 탐색하였다.

최근 교회는 다양한 원인으로 사회의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아주 일부의 교회가 전염병 바이러스의 전파자로 지적되어 신앙공동체의 약화 또는 상실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코로나 19 이후 2차 유행도 예측되고 있어, 일상의 부분적 상실과 더불어 교회에서의 모임 예배나 교제의 어려움도 불가피한 형국이다. 앞으로의 교회는 면역 개념을 이해하며, 예수그리스도의 정신과 삶의 향내를 드러내면서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참된 신앙공동체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시대와 상황에 맞는 신앙공동체 패러다임의 혁신과 실천이 요청된다.

본고 1장에서는 사회적 공신력을 잃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상이 된 교회와 신앙공동체의 문제점들을 이기성과 폐쇄성으로 지적하며 혁신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신앙공동체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한 '에클레시아'를 연구하며 분석하며, 사도바울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라는 신앙공동체에 적용한 의도를 파악한다. 4장에서는 면역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부정적 면역을 넘어 긍정적 면역의 개념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고찰했던 에스포지토의 재해석을 정리하며, 다양한 공동체와 개인, 교회의 신앙공동체 변혁을 위한 적용점을 도출한다. 5장은 결론으로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통해 약화 및 상실되어가는 소중한 모임과 참여를 회복시키고 더 높은 차원의 공동적 모임, 민주적 참여로의 확장을 제안한다. 그리고 면역 개념의 재해석에 입각해 다양

한 개인 안에서의 연합, 연합 안에서의 다양한 개인을 교회와 신앙공동체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 《 주제어 》

에클레시아, 신앙공동체, 에스포지토, 면역 개념, 커뮤니티스, 이무니타스

## I. 들어가는 말

“교회란 무엇인가?”- 사회의 공신력을 지니고, 모범이 되며 사회의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이 시대에 쟁점(hot issue)이 되어버렸다.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예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 자체가 위험한 일이 되었고, 면역력이 화두가 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신천지의 무분별한 모임에 의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교회는 예배 모임의 가부를 두고 심한 고민과 갈등에 휩싸였다. 슈퍼전파자인 신천지와 다르다고 하면서 기성교회들도 이런저런 위기로 마음이 찢리고 혼란스러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행 2:37)라고 외쳐야 하는 형국이 발생하였다. 급기야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distancing)’를 표방하고 행정적인 요청과 규정이 발효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구체적으로 확진자 자가격리(isolating ill person), 역학조사(contact tracing), 접촉자 격리(quarantine of exposed persons), 학교폐쇄 및 개강연기(school dismissals or closures), 직장폐쇄 및 재택근무(workplace measures and closures), 영화관이나 교회처럼 사람 많은 곳 피하기(avoiding crowding)라고 할 수 있다(Min W. Fong 외, 2020). 이러한 방침에 따라 많은 이들이 모이는 예배는 가정 및 개인예배로 대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오프라인 모임은 지속적으로 감시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모든 교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교회가 힘을 잃고 사회적 공신력이 약화되는 이유는 첫째로 이기성(利己性) 때문이다.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은 본질을 잃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이기적

으로 나 혼자 성공하겠다며 나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성찰해야 한다. 세상과 똑같은 자기중심적인 삶은 감동이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박삼중, 2000, 155). 교회는 성장이데올로기에 빠져 성장의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더 많은’ 성장을 목표로 달려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결과 교회는 실존적 공허 속에 허우적대며 개인의 목적, 즉 경제적 이익이나 사회적 상승, 또는 낭만적 사랑을 위해 사람들이 접촉하는 이기적 공간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De Botton, 2011, 23). 적지 않은 교회들은 코로나 19의 위험한 시기에도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프라인 모임의 위험성이 지적되는 시기에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모임을 강행하는 등 자신들의 신앙만 옳고, 우선이라는 억지스러움이 교회를 보는 사회의 고정적 시선이 되어 가고 있다.

둘째로 폐쇄성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대,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타자가 배제되었고, 다른 이들을 품는 마음과 공간이 비좁아졌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요하며 지배하다가 공동체의 파괴를 야기하기도 했다. 지난 20세기는 번역학적 시대로 나와 타자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설정된 시대였다고 피력한다. 번역학적 장치의 본질 속에는 어떤 맹목성이 있는데 낯선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방어적 번역의 상대는 타자성이다. 적대적인 의도가 없고, 위협을 드러내지 않는 타인도 이질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한병철, 2012, 12). 교회라는 공동체가 20세기 번역학적 시대에 부분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가라타니 고진은 “공동체는 하나의 언어게임으로 닫혀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는 두 가지 이상의 언어게임이 마주하고 있는 공간인데, 닫혀있는 공동체는 하나의 언어만 익숙하여 겉으로 대화가 있는 것 같으나, 독백(monologue)만 있다고 지적한다. 동일한 삶과 언어의 규칙만 통용될 때 교회를 자기 대화밖에 없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시선이 늘고 있다. 공동체 내에서 통용되는 언어게임을 공동체 외부의 타자에게 무턱대고 들이댈 때, 갈등과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오지훈, 2017).

이처럼 구성원들만 잘 되고 성장하고자 하여 타자에 선을 긋는 이기적인 공동체, 면역성에 입각해 이질적인 타자를 배제와 제거의 대상으로 삼는 폐쇄적인 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다. 그동안적지 않은 교회가 의도성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러한 이기성과 폐쇄성을 지녀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랑, 포용, 희생을 외치면서도 나와 비슷한 동질성의 공동체(community of sameness)를 추구하는데 익숙하며 이질적이고 낯선 것들에 마음을 열고 선뜻 다가가지 못했기에 곱지 못한 사회적 시선과 지적이 행해지고 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라. ‘함께 살아감’을 깨닫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교회를 폐쇄된 종교 언어의 게토(getto)로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덕을 갖춘 민주시민이어야 한다(오지훈, 2017). 따라서 교회는 이타적인 행동주의 신앙으로 거듭나야 한다. 타자에 대한 긍휼, 친절, 환대, 관용 등을 실천하면서 신앙의 생활화, 사회화가 일어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양승준, 2020, 78-79).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일환으로 혁신적 신앙공동체를 향한 변혁과 구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자칫 교회라는 신앙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이기성과 폐쇄성의 위험을 차단하고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관계성과 주체성에 기반한 참된 공동체를 형성을 에클레시아와 면역 개념에 입각해 연구한다.

첫째로, 교회라는 신앙공동체 이해의 새로운 지평을 위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가장 자주 사용한 바울의 의도에 주목한다. 둘째로, 이 시대가 주목하며 요구하는 면역 개념을 에스포지토(Roberto Esposito)의 코무니타스(Communitas)와 이무니타스(Immunitas)를 통해 살펴본다. 셋째로, 에스포지토가 재해석한 면역 개념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적용점들을 고찰한다. 넷째로 에클레시아와 면역 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신앙공동체의 모습을 제안한다.

## II. 고대 그리스에서 에클레시아의 의미와 사도 바울의 의도

### 1. 에클레시아의 의미: 참여, 공유, 실천

에클레시아는 데모크라티아(Demokratia)와 연결하여 이해된 단어이다. 데모크라티아는 데모스(Demos: 다수, 시민)와 크라티아(Kratia: 지배, 통치)로 이루어진 단어로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이다.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공동체의 구성원 스스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현대적 의미의 민주 정치와 같은 맥락이다.

그리스 도시국가를 일컫는 폴리스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 한 도시국가의 시민권자들이 모여서 폴리스의 중대사를 직접 의논하는 자리, 예를 들어 “아테네는 델로스나 스파르타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페르시아의 침입 앞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와 같은 일들을 시민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자리가 에클레시아였다. 다시 말해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시절 에클레시아는 아테네의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듣고 토론하고 법령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는 집회였다. 이는 민주 정치의 체계를 가진 일종의 민중집회였는데, 자유 시민들이 공공의 일을 서로 의논하기 위하여 각 가정이나 직장에서 불러 나가서 모이는 집회를 의미했다(이요한, 1985, 1). 비록 여성과 노예는 소외된, 아테네 남자 시민들만의 공적인 모임이었지만(미국 건국자들도 마찬가지) 고대 그리스인들은 에클레시아에 참여함으로써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1997, 45)는 “인간은 사회적, 정치적 동물”이라고 말한다. 이 말의 함의는 폴리스, 즉 에클레시아를 통해서만 좋은 삶(good life)을 이룩할 수 있고 에클레시아를 떠나서는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고립된 개인은 정치적 결사의 혜택을

타인과 더불어 누릴 수 없거나 이미 자족해 있으므로 그럴 필요가 없는, 국가의 일부가 아니기에 금수이거나 신(神)일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단체들이나 관계들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폴리스의 에클레시아만은 아름답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 아테네 시민들은 에클레시아에 참석한다는 것보다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음을 중시했다. 단순히 행사와 모임에 참석하는 단순한 출석(attend)가 아닌 여러 사람이 같이하는 일이나 활동, 행사에 끼여서 함께 하는 적극적 참여(participate)의 의미를 핵심으로 여겼다. 즉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만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의 능력은 인간 조건(Human Condition)이며,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은 참여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행위에서 추구하고 발현할 수 있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인들은 에클레시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참여하는 일 자체를 매우 큰 명예와 영광으로 여겼다(박영호, 2019).

아렌트(1996, 99-102)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정치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을 엄밀히 구분하는 정치철학자이다. 아렌트는 18세기 후반에 시작된 근대사회의 발생으로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 사이의 고대적 구분이 붕괴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근대성에 기초한 ‘사회’는 공적영역의 자유를 새로운 소비중심주의 및 순응주의 문화로 훼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대 사회에 대한 동경과 현대 사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고대로부터 활동적인 삶과 관조적인 삶의 관계는 어느 것의 우월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으며,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두 가지 삶의 방식 사이에는 서로 갈등과 균열, 긴장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은둔하는 고고한 삶의 관조적 삶과 전쟁과 같은 국사에 관여하는 활동적 삶의 구분은 가능하나, 정치적, 공적 모델인 폴리스에서조차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구분하지는 않았다(64-65). 그러나 아렌트는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삶, 즉 활동적 삶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처럼 보인다. 정치적 삶의 영역과 행위에 대해 강조하고, 행위를 통해서 정치적 삶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도 갖고 있다. 그 결과 아렌트는 공적영역을 강조하지만, 사적영역을 간과한다

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공적인(public)’이란 말을 ‘정치적인(political)’이라는 단어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한다. 그러나 공적이라는 단어는 정치적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아니다. 정치적이라는 말은 라틴어 ‘poplicus’에서 유래했는데, “사람들에 관련된”이라는 뜻이다. 그 단어의 변별적인 의미는 ‘pubes(어른)’라는 라틴어에서도 표출되는데 ‘pubes’는 ‘puberty(사춘기)’의 어원이다. 공적인 삶은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면서 자기를 돌보고, 타인을 살필 준비가 된 이들의 활동무대였다. 반면에 ‘사적인(private)’이라는 단어가 ‘privare’라는 라틴어에서 왔다는 것, 거기에서 ‘박탈당한(deprived)’이란 단어가 파생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현대인이 그토록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생활이 고대에서는 성인들이 뭔가를 박탈당한 형태로 여겼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고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에 가는 것을 선호한다. 즉 동질성의 공동체를 추구하며, 편안한 장소(comfort zone)에서 편안한 사람들과 만나려고 한다. 똑같은 사람들, 편한 사람들만 계속 만나면서 동일한 경험과 태도와 생각을 주고받는 사생활의 영위처럼 사람을 멍청하게 만드는 일이 어디 있을까? (강남순, 2015, 67). 고대에 완전히 사적인 사람을 칭한 그리스어 ‘idiotes’는 바보를 뜻하는 ‘idiot’의 어원이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여겼다. 고대 그리스의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표현한 것은 다양한 사람들, 낯선 사람들이 참여의 능력을 발휘해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face to face) 자유롭게 섞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Palmer, 2012, 164-165).

지금의 교회가 에클레시아를 살아내려면, 개인의 사적 영역을 존중함은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뭉쳐야 한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양성 있게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며 참여해야 한다. 다양한 잠재성들이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로 영그는 것을 축하하며, 참다운 하나님의 창조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고대 그리스 시민들이 에클레시아에 참여하며 얻고자 했던 명예와 영광의 발현, 즉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참여하여 모임과 비전, 책임을 공유하고 실천하며 발

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인 것이다.

## 2. 사도바울의 에클레시아 사용: 공적인 성격, 민주적 참여 보다 더 높은 차원

에클레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단어의 합성어 조합인 ‘~로부터 (from)’의 뜻을 지닌 전치사 ‘에크(ἐκ)’와 ‘부르다(call summon)’의 뜻을 지닌 동사 ‘칼레오(καλέω)’를 합쳐 “~로부터 불려나온 사람들” 혹은 “~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에클레시아가 신약성서 시대의 실생활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탐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기원전 5-6세기경부터 이미 사용되던 이 단어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차용하여 ‘교회’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이병철, 1985, 226).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어를 차용하기 전 에클레시아는 “시민들의 모임 혹은 총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신약성서 사도행전 19장 32절, 39절에서 ‘민회(lawful assembly)’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시민들의 총회, 합법적인 집회나 모임을 뜻하는 정치적인 용어이다. 이는 사도 바울 시대에 이르러서도 민주주의의 이상과 시민들의 총회 및 책임감과 같은 특징들을 지닌 채 남아 있었다. 이 단어가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용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회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Douglas, 1996, 150). 결국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정규적으로 소집된 정치적 단체로서의 백성들의 모임을 말하며, 둘째는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합을 나타내고 있다(고영민, 1985, 127).

사도 바울 시대에 이 단어는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흐름이 교차하는 영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아테네의 고전 민주주의 시절 에클레시아는 “아테네의 남자 시민들이 아테네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듣고, 토론하고, 법령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는 집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바울의 시대는 이 민주주의의 전성기에서 400여 년이 지난 시기이다(박영호, 2018, 22-23). 바



울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지역 공동체에 적용한 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자의식을 현저하게 고양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그의 소규모 그룹과 거대한 시민정치 조직의 차이를 메워 교회를 유사 민회로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자의식을 시민정치 집단의 민회가 꿈꾸던 그 어떤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했다(박영호, 2018, 408).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적 자의식에 있어서 공적인 성격과 민주적 정치 참여를 본질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성서에 나타난 교회론, 특히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사용한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통해 이 시대에 요구되는 교회의 모습은 공동체적이며, 공적인 성격, 그리고 민주적 정치 참여의 회복이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령님과 교통하는 자신들의 모임에 에클레시아를 사용했다. 그 모임은 사적인 모임(private gathering)이 아니라 공적인 모임(public gathering)이었고, 후에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공동체적 모임으로 확장되었으며, 그리스 출신들을 임원(일곱 집사)으로 선출할 정도의 민주적 정치참여의 성격을 띠었다.

고대 그리스와 사도바울의 에클레시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에스포지토가 재해석한 면역 개념을 통해 이 시대 교회의 신앙공동체를 위한 적용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Ⅲ. 면역 개념, 그리고 코뮤니타스와 이무니타스

#### 1. 면역 개념

어원적으로 면역개념을 살펴보면, 면역에 해당하는 어원인 ‘immunity’는 라틴어 명사인 ‘immunitas’에서 기원하며 형용사형은 ‘immunis’이다. 그것은 부정접두사인 ‘im’과 ‘munus’로 이루어져 있는데, ‘munus’란 공적

인 의무, 보상, 책임 등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고대 로마에서 'immunitas'는 개인이나 집단이 공적인 의무나 책임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을 의미했으며, 법적으로는 특정한 법에 적용받지 않을 특권이나 자격을 의미하기도 했다(Cambell, 2006, 3). 또한 그것은 사회적 의무로부터 면제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배제된 존재임을 의미하기도 했다. 'Immunity'를 'community'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면역은 공적 의무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사회적 호혜와 증여의 고리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게 한다. 결국 면역은 특권이면서도 차별이다. 중세에도 공적 의무로부터의 면제라는 면역 개념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대상은 변하게 된다. 교회는 세속 군주의 권위를 인정하는 대신 세속적 의무에서 면제되어 오로지 신적 권위를 확립하는데 매진할 수 있었다.

면역 개념을 정치철학과 연결하여 성찰해보면, 고대와 중세를 거치며 근대 정치 철학이 정초되던 시기, 홉스와 로크를 통해 면역의 법적, 정치적 개념 속에 드러난 자기방어라는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홉스는 자기방어와 보존의 원리를 인간의 본성과 사회 조직의 핵심으로 간주하였다. 로크 또한 홉스에게서 발견되는 자기방어의 개념을 그대로 유지한다(황임경, 2013, 120-121). 홉스가 크롬웰의 공화국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고 『리바이어던』을 저술하여 국가나 군주에 대해 절대복종과 개인의 자연권의 전면양도를 주장했다면, 로크는 군주에 대해 저항권을 유보함과 개인의 자연권을 국가나 국왕에게 신탁하는 것을 피력했다. 홉스는 시민들이 자기 보존의 권리를 무제한으로 행사하여 사회가 전쟁상태에 있다고 보았기에 시민들은 자신들의 자연권을 국가에 바치고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만적·강진숙, 2019, 277-278). 홉스가 말하는 근대 국가의 형성은 타자들이 야기하는 안전에 대한 위협에 맞서고자 개인들이 절대 권력을 지닌 주권자를 세우면서, 경계를 탄탄하게 하여 이질적 요소의 유입을 막아 인공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이문수, 2018, 163). 로크는 홉스와 마찬가지로 국가라는 것이 시민들의 계약으로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로크는 혼란스러운 청교도 혁명 시기가 아니라 평화스러운 명예혁명 전후의 시기에 살았다. 따라서 이성에 의해 서로 신체나 재산을 존중하며 평화로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국

가에 자신들의 자연권을 바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로크는 국가의 의무가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보장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에 생명권과 재산권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권만을 신탁한다고 했다. 만일 국가가 이 계약을 위반할 때는 이에 대항하는 저항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간접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다(이만적·강진숙, 2019, 278).

면역학에서의 면역 개념은 19세기 후반 러시아 출신의 생물학자인 메치니코프(E. Metchnikoff, 1845-1916)가 정초한 이래, 근생의학의 발전을 이끌어 온 원동력 중 하나다. 외부의 병원체에 한 숙주의 방어 체계를 연구하는 학문인 면역학은 감염성 질병에 한 과학적 이해와 효과적 적응을 가능케 했을 뿐 아니라, 종양학과 장기 이식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해 왔다. 한편 면역학은 몸과 질병에 한 특정한 은유를 통해 의료의 사회 문화적 측면에도 상당한 향을 끼쳐 왔다. 특히 외부의 침입에 한 개체의 방어와 공격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 은유’ 또는 ‘전쟁 은유’는 의료 영역을 뛰어넘어 현 문화 전반에 걸쳐서 몸과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면역학을 타자를 부정하는 기획으로 간주하고 이를 현 사회의 병리 현상에 의한 철학적 사유의 근거로 전유하는 시도도 발견된다(황임경, 2013, 116).

면역 개념을 어원적, 정치철학적, 면역학적, 사회병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연구의 초점은 “공동체가 타자에 대해 열려 있는 동시에, 개인의 특이성을,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는 담론에서 자유롭게 하며 구성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공동체는 각자의 시민들이 공공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만드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과가 지대한 도구로 인식된다. 따라서 공동체의 약화 및 상실의 위험이 있다면 회복과 재강화가 불가피하다(이문수, 2018, 152-153). 교회의 신앙공동체도 마찬가지다. 약화와 상실의 기로에 있다면 회복과 재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동체와 개인에 관한 에스포지토의 면역 개념에 관한 해석을 주목해 본다.

에스포지토는 이탈리아의 정치철학자이다. 그는 ‘면역의 정치철학자’라고 불릴 만하다. 공동체와 그것이 지니는 다양한 정치, 사회, 문화적, 심리적 파급에 대하여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심층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 학자이다. 공동체 관련 그의 3부작, 『Communitas』(1998/2010), 『Immunitas』(2002/2011), 『Bios: Biopolitics and Philosophy』(2008)에서 에스포지토는 공동체와 그것의 작동 논리인 면역패러다임(immunitary paradigm)을 결합시키면서 “죽음정치(thanato-politics)”로서 생명정치를 보는 관점에 반하여 살게 만드는 힘으로서의 긍정적 생명정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이문수, 2018, 158). 에스포지토는 홉스와 로크의 저술에서 등장하는 주권, 재산 및 자유의 특징에서 현대의 생명 정치 기원에 대해 논의한다. 에스포지토는 면역에서 비롯된 생물학과 정치의 교차점을 철저히 해체한 후에야 긍정적인 생태 정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Cambell, 2006, 3). 에스포지토의 이론에 입각해 타자와 타자성에 대한 개방, 현대의 측면과 주체의 중요성 등을 연구하며, 교회라는 신앙공동체가 지녀야 할 새로운 의미와 새 지평을 모색하고자 한다. 에스포지토의 개념과 사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언어적 한계로 인해 캠퐸(Timothy Cambell)의 『Bios, Immunity, Life: The Thought of Roberto Esposito』를 참조하였다.

## 2. 코무니타스

에스포지토는 자신만의 정체적 지향이 강한 공동체 논의를 벌이면서, ‘community’에 대한 어원적 접근이 공동체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영어 ‘community’가 발전해 나온 라틴어 코무니타스(communitas)에 대한 어원적 분석이 중요한데, 코무니타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보는 것은 ‘cum’과 ‘munus’이다. 즉 영어의 ‘with’를 의미하는 ‘cum’을 핵심적으로 두고 공동체를 사유하는 것이다. 이는 “상호교환의 바로 그 객체”, 즉 공동체를 만드는 조건으로 서로 주고받는 객체를 경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상호교환의 객체로서의 ‘munus’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라틴어 ‘munus’는 직무, 과업, 책무, 의무 등 되갚아야 하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수신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상호작용을 해야만 하는 선물로써 ‘munus’가 가

지는 의미를 중요시한다. 공동체의 존재들이 갖고 있는, 받은 선물을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로서의 ‘munus’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존재들을 묶는 끈의 역할을 한다. ‘선물’의 의미인 로마어 ‘donum’과 다르게 ‘munus’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어야만 하는 선물, 타인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 새로운 기부를 요구하는 감사를 나타낸다. 따라서 코무니타스는 다시 돌려주어야만 하는 선물이 핵심적인 의미이다. 에스포지토는 여기서 공동체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채무, 선물, 기부 제공의 의무가 바로 그 구성원이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짊어지는 원초적 하자를 구성하는데,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신분, 지위, 자격을 얻기 위해 개인적 정체성을 희생시켜야 가능하다는 의미에서의 하자이다(Cambell, 2006, 4-5). 다시 말해서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무엇으로부터 정의할 수 없고, 구성원들이 주체로서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본질이 탈취(expropriation)된다는, 결핍에 의해서 정의된다는 것이다(이문수, 2018, 159).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확산시킨 신천지의 모습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코무니타스의 강도 높은 과업과 책무, 권위의식, 강요체제에 의해 주체의 탈취와 결핍을 초래함을 목격했다. 공동체는 ‘munus’의 과도한 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체의 탈취와 결핍을 주의 깊게 고려하며 분별해야 한다.

### 3. 이무니타스

공동체가 우리의 ‘바깥’이라고 한다면, 번역화는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절단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우리 내부로 다시 데려가는 것이다(Esposito·김상운, 2015a, 397). 이무니타스(Immunitas)를 통해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의학적 상황,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전염병의 유행이나 불법적인 이민자의 급증에 따른 유럽 사회의 혼란, 매일 수백 개씩 만들어지고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파급 등과 같은 사건들을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의 틀로써 번역을 제시

한다. 그에 의하면 면역은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보호 반응'이며, 경계를 파괴하려는 외부의 위협에 대한 방어 전략인데, 오늘날 세계는 개인이나 사회 전체에 대해 점증하고 있는 위협과 이에 대항하는 면역 반응의 집중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Cambell, 2006, 5).

공동체 연구와 관련하여 에스포지토가 주장하는 논지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개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 채무로부터 탈출하려는 시도가 근대로 오면서 서양에서 본격화된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사람들이 공동체의 채무에 묶여 자신의 정체성까지 희생해야 했다면 근대로 오면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관계로부터 단절된 고립된 원자로 만들면서 동시에 공유하는 채무,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이무니티(immunity)로 커뮤니티(Community)를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에스포지토는 근대에 들어 오면서 면역 패러다임이 공동체가 방어적 이무니티로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인식론적 틀이 되었다고 말한다. 즉 근대화는 면역화, 완곡히 표현하면, 자기 면역화를 밀어붙인 과정이라는 것, 근대가 버려졌던 주권, 대표, 자유, 소유 등과 같은 정치철학 개념들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국가를 외부로부터 지켜내는 동시에 자기 내분의 갈등을 중화시키려고 하는 자기 면역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Esposito·김상운, 2015a, 409-410). 에스포지토에 따르면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 이론의 시작이 되는 자연적 인간의 상태는 재산, 생명, 정체성이 언제라도 탈취될 수 있는 상태이다. 홉스의 중심적인 정치적 관심은 바로 인간 생명의 보존이다. 이를 위해 절대 권력을 가진 주권자와 사회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인간성의 자기 파괴적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스스로를 부정하고 단아버림으로써만 "자연은 그 생명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Esposito·김상운, 2015a, 410). 물론 우리의 삶에 면역, 이무니티가 필요하지만, 에스포지토는 개념적 언어 및 개인과 삶의 측면에서 홉스의 '리바이어던' 같은 유령을 거부하고 포기할 때 변화와 생명의 재창조가 시작된다고 주장한다(Cambell, 2006, 18).

코로나 19로 인해 면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 등 전염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면역

체계가 견고해졌다. 모임의 예배와 친밀한 교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교회의 신앙공동체에도 개인의 방어적 면역화 과정으로 인해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하다. 코로나 19 이후 전염병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면역, 즉 이무니티적 주체가 증가하는 시기에 교회와 신앙공동체의 대안들을 에스포지토의 재해석을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

#### 4. 코뮤니타스와 이무니타스의 재해석

에스포지토는 어원적 분석과 더불어 생물학적 면역체계(immune system)에 대한 해석을 기초로 이무니티와 코뮤니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치, 철학적 의미를 추출하려 한다. 그는 생물학적 면역을 “조직이 전염성을 갖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불응성”이라고 정의하면서 이와 같은 면역이 가능한 것은 “같은 종류의 더욱 유독한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약화된 형태의 감염”을 스스로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에스포지토는 약화된 소량의 바이러스를 무리 몸에 침투시켜서 치명적 병원균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형성시키는 예방접종을 면역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Cambell, 2006, 2). 이와 같은 정의에서 면역체계라는 것이 조직체와 그것의 외부와의 관계에서 풀기 어려운 난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직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분명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경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면역의 정의에서 보듯 생물학적으로 조직체가 생존하려면 그것이 예방접종의 형태이든 아니면 다른 종류의 개방성이든 자신의 내부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 외부의 무언가의 침투를 조직체 안으로 허용해야 한다. 이는 다른 말로 생명은 죽음이라는, 반대되는 존재를 내부로 받아들일 때에만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말한다(이문수, 2018, 161-162). 그렇지 않으면 ‘면역 폭풍’이 일어나는데, 신체가 과도한 면역 물질을 분비해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면역 과잉반응을 일컫는다. 이른 바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이다. 사이토카인은 바이러스 등 외부 침입자가 몸에 들어오면 다른 면역세포를 자극해 병원체와의 싸움을 유도하고, 감염 상태에 따라

분비량을 조정하는 등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이다. 문제는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분비돼 정상 세포를 공격할 때, 감염 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조직과 장기까지 망가뜨리게 되는 ‘자폭’ 현상인데, 면역 체계가 강력한 젊은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736113>).

에스포지토의 논의가 개방적 공동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그가 단지 이무니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극복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개방적 공동체의 조건으로 이무니티를 새롭게 해석하여 본다는 사실이다. 주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자신을 열고, 기능하는 구성체임을 강조한다(이문수, 2018, 165). 따라서 이무니티는 커뮤니티의 공동(common)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와 타자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바로 그 가능성인 것이다(Cambell, 2006, 3).

면역이라는 용어와 개념의 뿌리는 하나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부정을 통한 자기 보호라는 논리, 즉 면역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생명은 지속적인 타자의 부정을 통해서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에스포지토가 파악하는 면역의 논리는 부정성에만 근거하지 않는다. 그것은 타자의 부정을 통한 닫힌 체계로서의 면역이 아닌, 주위 환경과의 끝없는 교환을 통해 열려있는 정체성을 가능케 하는 열린 체계로서의 면역이다. 면역 체계의 기능 이상이나 탈취, 결핍이라기보다는 주체를 재구성하는 창조적 힘을 지닌 것으로 상정된다. 결국 에스포지토는 면역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생명정치 시대에 정치와 삶, 생명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독창적인 시각을 제공한다(황임경, 2013, 130-131).

면역 체계에 대한 에스포지토의 정치철학적 재해석은 면역의 긍정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면역은 타자를 무조건 배제하려는 장치라기보다는 자기를 구성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Cambell, 2006, 7). 이러한 면역의 긍정성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증거로 에스포지토는 임신(preganncy)의 예를 제시한다. 태아는 면역의 관점에서 볼 때 엄마에게 이물질 혹은 타자일 뿐이지만, 면역 체계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된다. 부정과 보호의 변증법이 면역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다. 산모의 면역 체계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산모가 품고 있는 태아를 거절하지 않으며, 산모가 태아를 품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태아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전적 이질성 때문이라는 것이다(이문수, 2018, 170). 산모는 태아에게 향하고, 태아는 산모에게 향하지만, 그 분쟁의 결과는 오히려 생명의 불꽃을 일으킨다. 이질성의 면역이 죽음에 향하는 싸움이라는 은유와는 반대로 산모의 자궁에서 벌어지는 것은 삶을 향한 싸움이며, 차이와 갈등이 반드시 파괴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 조절 능력 또한 면역 반응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에스포지토는 어머니와 태아가 서로 대립하는 면역 체계의 긴장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생명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Esposito·김상운, 2015a, 413). 이와 흡사한 또 다른 유비는 장기기증과 이식을 언급할 수 있다. 타인에게서 이식 받은 장기가 이질적인 나의 몸의 면역체계와 부딪치지만 결국 생명의 회복을 자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생물학적 면역 개념은 공동체의 형성과 적용에 대해 두 가지 선택지를 펼쳐 놓는다. 하나는 이무니티를 타자와 같은 바깥의 이질성에 관하여 군사적 방어로 보는 대립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질적인 타자에 대해 포용과 환대로써 흡수하는 것이다(이문수, 2018, 163). 서두에서 지적한 교회의 이기성과 폐쇄성의 원인도 신앙공동체와 교회의 멤버들이 가진 이무니티의 방어적 태도가 많은 지분을 차지한다.

에스포지토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면역은 어떤 문턱을 넘어가게 되면 결국 생명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자유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집단적 실존의 의미 자체가 상실되어 버리는 일종의 감옥 혹은 갑옷 속에 우리의 생명을 가둬버린다고 지적한다(Esposito·김상운, 2015b, 315).

따라서 자아와 타자에 대한 경계와 담으로 이무니티를 보는 관점은, 사이토키인 폭풍에서 보았듯이, 자기 자신을 방어해야 할 메키니즘 자체에 등을 돌릴 정도로 면역체계가 너무 강력해져서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Esposito·김상운, 2015b, 317). 다시 말해서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향해 강박적으로 나아가는 자기면역적 정체(regime)에 내맡겨진 세계는, 인간의 삶은 자신의 모든 복잡성 속에서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외부의 적뿐 아니라 자신의 신체 또한 파괴로 치달을 것이다(Esposito·김

상운, 2015b, 319).

그러므로 에스포지토는 최근의 번역학의 철학에서 논의되는 번역의 긍정성을 인정하고 이를 ‘긍정적 생명정치’의 가능성과 계기로 삼는다(황임경, 2013, 139).

에스포지토가 주장하는 긍정적 생명정치(affirmative biopolitics)는 개인들의 각기 다른 모양의 삶이, 자체의 규범성을 지닌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즉 특정한 규범에 개인들의 삶이 틀에 맞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삶의 형식은 서로 다른 삶의 규범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때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인들이 공유하는 것이란 단지 자신들이 지니는 근본적 취약성과 결핍일 뿐이다. 에스포지토에게 긍정적 공동체의 중심에는 원초적 결핍 또는 빈공간이 존재한다. 공동체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common’은 그들이 공유하는 특징이나 재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에스포지토의 주장처럼 ‘common’은 소유, 재산, 전유가 아닌 오직 결핍을 말한다. 긍정적 생명정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근본적 의미에서 타자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은 공동체가 부과하는 ‘munus’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munus’는 태어나면서부터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각각의 개인이 기꺼이 짊어지는 의무이고 책임이다(Cambell, 2006, 9-14). 이에 대하여 에스포지토는 “배타적인 소유적 공동체와 달리 긍정적 생명정치의 공동체는 그 구성원을 극단적 위험, 즉 우리의 개인성과 더불어 타자와의 관계에서의 불가침성을 보장하는 경계를 상실하는 것에 노출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Esposito·김상운, 2015b, 351).

20세기를 특징짓는 이질적인 것이나 이방인에 한 개체의 방어를 중심으로 한 번역학의 논리는 자기 긍정성의 과잉을 특징으로 하는 21세기에 통용되기 어렵다. 번역의 사회적, 정치철학이 다양하게 분화되는 국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부정의 논리에 근거한 생의학적 번역 개념에 시선을 고착시켜서는 안 된다. 번역은 더 이상 이방인의 배제와 포섭과 같은 침입-방어의 논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자기와 타자의 경계는 언제나 유동적이고 상호침투적이며 그 과정에서 번역은 주체와 타자를, 내부와 외부, 개인과 공동체를 끝없이 새롭게 구성해 나간다. 그런 점

에서 면역은 과거를 설명하기보다는 미래를 기획하는 담론으로, 삶과 생명을 분리하기보다는 통합하는 담론으로서 더 큰 가치가 있다. 면역에 대한 철학적 사유는 계속되어야 한다(황임경, 2013, 139).

#### IV. 긍정적 생명정치를 통해 본 교회와 신앙공동체 이해의 새 지평

교회라는 신앙공동체의 새로운 이해를 위해 에클레시아와 코무니타스와 이무니타스를 탐구하면서 에스포지토의 재해석을 통해 긍정적 생명정치의 공동체를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코무니타스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평등한 구조화되지 않은 공동체 또는 공동체 정신에 대한 라틴어 명사이다. 코무니타스는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즉, 자신만의 세계를 벗어나서 자기 안에(inside)만 머무르지 않고 바깥(outside)을 향하는 것이다. 이무니타스의 사전적 의미는 세금과 공공 서비스의 자유, 면제이다. 그러나 공동체와 결부된 이무니타스는 자아라고 하는 본질이 드러난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이들과 관계성을 갖고 접촉하며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관계, 접촉, 영향으로부터 왜곡되지 않은 자신을 찾는 것이 이무니타스다. 이무니타스에서 파생된 ‘면역(immune)’이라는 단어처럼, 인간의 면역체계(immune system)는 자신의 몸에서 이질적인 것들과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을 거부하며, 오염되지 않은 자신의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에스포지토의 긍정적 생명정치는 면역체계가 공동체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와 타자 간의 진정한 상호 묶임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이문수, 2018, 170).

올바른 교회의 신앙공동체로서 에클레시아는 에스포지토의 긍정적 생명정치를 통해 재해석한 코무니타스와 이무니타스의 상호관계를 필요로 한다. 즉 다른 이들을 향하는 코무니타스와 다른 이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잃지 않는 이무니타스가 상호작용하며 공존해야 한다. 만일 코무니타스만을 강조한다면, 자아가 상실된 공동체에서 ‘군중 속의 고독’(Riesmann, 2011)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집단 안에서 인간은 결국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타인들의 생각과 관심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 집단에서 격리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외부지향형’ 인간으로의 변화만을 추구한다. 이는 자신의 취향을 포기하고 집단에 녹아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 겉으로 드러난 사교성과는 달리 내면적으로 고립감과 불안으로 번민하는 고독한 군중을 만들어 낸다. 최근에는 극한의 ‘군중 속의 고독’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조차 포기하고 스스로 혼자자려는 사람들인 혼족이 많아지고 있다. 반면에 이무니타스만을 강조한다면 면역 시스템의 시대, 즉 안과 밖, 친구와 적, 나와 남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 그어진다. 낯선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맹목성과 방어성이 드러나 아무런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타자도, 아무런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타자도 이질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과 제거의 대상이 되고 만다.

에스포지토는 코무니타스와 이무니타스의 상호관계를 통해 에클레시아를 이루어가는 원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을 확산시킨다. 코무니타스는 인간을 어떤 것에 연결할 수 있게 하며, 인간 자신을 초월하도록 한다. 이는 속박이 아니라 자신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힘을 경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에 소속하고 연결하면, 자기 존재의 틀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제공 받는다. 자기 존재의 틀에만 머물러 있으면 발전과 초월을 이룰 수 없다. 코무니타스에 속해야만 자기에게 매몰되지 않고 자기 밖으로 이탈할 수 있다. 반면에 이무니타스 통해 개인의 개성, 독특성, 정체성을 보존하며 공동체와 연결되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코무니타스와 이무니타스의 공존을 실천했다. 예수는 공생애를 통해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며(hanging together) 새로운 공동체인 코무니타스를 이루었고, 매우 빈번히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성찰하며 자기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이무니타스를 이루었다.

결국 변화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할 에클레시아, 기독교

교 공동체는 코뮤니타스와 이무니타스의 경계선에 위치해 양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이무니타스에만 가까우면 자신만 존재하고, 코뮤니타스에만 가까우면 자신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이무니타스를 뒤집어 사유하는 것, 즉 코뮤니타스의 열려 있고 복수적인 형태 아래서 사유해야 한다(Esposito·김상운, 2015b. 321). 이는 진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개인의 강한 정체성과 더불어 공동체에 연합하기 위해 자신들의 결핍들을 공유하며 밖으로 향하는, 둘 사이의 창조적 긴장과 생산적 공존이 중요하다.

## V. 나가는 말

에클레시아와 에스포지토의 긍정적 생명정치를 통해 교회의 신앙공동체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양성(diversity)은 연합(unity)과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성이 공동체에서 연결될 수 있는 상황, 환경, 조건들이 있어야만 연합할 수 있고 의미를 만들 수 있다.

교회의 신앙공동체가 생존하고 존립하고 활성화되려면, 기독교교육을 통해 공동체 밖에 있는 개인과 연결시키는 사역(ministry)들이 증가해야 한다. 방어적 면역 체계 안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의 긍정성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결핍을 공유하면서 공동체에 연결하는 코뮤니타스가 필요하다. 또한 공동체에 연결하고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적당한 거리를 두며, 자신의 면역체계를 유지하는 이무니타스도 필요하다. 내가 밖에 것과 연결되기만 하면 나 자신이 흡수되어 나를 잃게 되고 만다. 코로나 19로 인해 폭로된 신천지의 민낯이 이를 여실히 증명했다. 교회의 교육과 사역에 있어서도 이를 유념해야 한다. 코뮤니타스와 이무니타스를 통해 공적인 세계의 질서(koinos kosmos)와 사적인 세계의 질서(idios kosmos)가 병행되어야 한다. 교회의 신앙공동체와 기독교교육이 공적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의미 있는 연결을 하려면, 내 자신(idios)과 관계성 있는 공적인(koinos) 연결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자신이 고립되지 않으면서 의미를 찾고, 자신이 흡수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

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사적인 세계와 공적인 세계가 함께 연결되어 교육적 사역(educational ministry)이 발휘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에클레시아는 고대 그리스의 정치, 경제, 사회의 측면과 생활에서 새로운 가치의 집단으로 인정을 받았다. 많은 이들이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참여와 연합을 이루고, 치리하는 주권을 갖고 가치 있는 멤버가 되는 평등한 모임이었다. 혼자가 아닌 함께, 그리고 에클레시아 안에서 변화를 경험했다.

초대교회는 자신이 고립되거나 격리된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의 개인(individual)이 아닌, 코무니타스에 소속되어 참여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함께하며 변화를 경험하는 개인(personal)이 날마다 더해졌다(행 2:41-47). 그 결과 이방인까지 소속하며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로 확장되었다.

이 시대의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개인의 강한 정체성과 은사를 발휘하고, 자신들의 결핍까지 공유하며 참여하는 이무니타스와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바깥으로 향한 공적 역할을 실천하는 코무니타스의 조화와 공존을 통해 주님의 명예와 영광을 높이는 진정한 에클레시아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만 온 백성에게 칭송 받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 에클레시아에서 다시금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교회가 참된 신앙공동체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동체를 방어적 또는 부정적으로 사유하는 방식을 탈피해야만 외부에 대한 개방과 환대가 가능해지는 최소한의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공동체가 내부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적 이무니티 개념에 머무는 한 그 공동체는 스스로 자신의 공격을 받으면서 없어질 것이다. 교회는 이기성, 폐쇄성 극복을 위해 팔머(Paker. J Palmer)가 제시한 가르침과 배움의 공간을 창조하는 일에서 요청하는 세 가지 본질적인 차원인 개방성과 환대, 경계가 필요하다. 개방성은 방해물, 장벽을 치우는 것이고, 환대는 서로를, 서로의 갈등을, 서로의 새로운 생각을 개방적이고 주의 깊게 받아들이며, 모든 낯선 이와 낯선 말이 환영 받는 곳이다. 경계는 공간의 개방성을 지켜줄 뿐 아니라 혼란과 혼돈을 막는 테두리, 둘

레,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에서 변화가 가능한 진리와 만날 수 있다(Palmer, 1993, 71-75).

둘째, 교회의 신앙공동체가 에클레시아의 보다 높은 차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면역화 논리의 바깥에서 사유해야 한다. 레비나스는 전적으로 “낮선 이”로 다가오는 소외된 타자의 얼굴은 우리에게 명령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 명령에 거부하거나 응답할 수 있다. 타자를 1인칭적 관점에서 볼 때 타자와의 관계는 결국 “나의 존재 유지의 연장”이지만, 2인칭적 관점에서 볼 때 타자와의 관계로 인해 “나의 존재로부터 벗어남”이 가능하다. 소외된 타자의 얼굴은 그 자체로 나에게 말을 건네오며, 타자로서 나에게 소통을 호소하며 접촉한다. 그러나 소외된 타자의 얼굴로부터 오는 윤리적 호소는 나에게 행복을 주기보다 오히려 상처받기 쉬운(vulnerable), 자기를 내어줌(self-giving), 자기 고통(self-suffering)을 감내하도록 요청한다. 마치 십자가 위의 예수그리스도처럼 자기 부인(abnegation/kenosis)으로 대속의 자리에 서는 책임적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을 요구하는 타자의 얼굴 앞에서 내가 ‘응답 할 때’, 나를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세울 때, 나는 비로소 ‘응답하는 자’로서 ‘책임적 존재’ 또는 ‘윤리적 주체’로 탄생한다. 타자의 얼굴에 그 얼굴의 부름과 명령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Here I am)”라고 말해야 한다(이성조, 2018). 외부적 타자에 대한 적개심을 없애는 것 이상으로 그 타자가 나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임을 인정할 때 새로운 공동체의 기초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교회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는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이고 존재론적인 타자에 대한 의존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자기 완결적이고 고립적인 환상을 지양하고 타자에 대한 개방, 환대, 경계와 더불어 취약성을 극복하고, 자기를 내어주며 응답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공동체이다. 이를 위해 이무니타스를 뒤집어 사유하는 것, 코무니타스의 열려있고 복수적인 형태 아래서 사유하는 것이 중요하다(Esposito·김상운, 2015b, 321). 오늘날 이러한 사유를 재활성화 해야 하며, ‘우리의 함께-있음’과 더불어 ‘함께-있음으로서의 우리’(Esposito·김상운, 2015a, 400)라는 공동체를 향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남순 (2015). **코즈모폴리타니즘과 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 고영민 (1985). **신약성서 헬리어사전**. 서울: 기독교문사.
- 박삼중 (2000). **교회생각**. 서울: 홍성사.
- 박영호 (2018). **에클레시아**. 서울: 새물결플러스.
- 이만적·강진숙 (2019). **세계시민을 위한 인문학**. 서울: 지금.
- 이문수 (2018). 인간 존재와 열린 공동체. **문화와 정치**, 5(2), 147-178.
- 이병철 (1985). **성서원어대전, 신학사전2**. 서울: 브니엘출판사.
- 이성조 (2018). **불편한 믿음**. 서울: 두란노.
- 한병철 (2012). **피로사회**. 김태환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원저 2011 출판).
- 황입경 (2013). 자기 방어와 사회 안전을 넘어서. **의철학연구**, 16, 115-143
- Arendt, H (2019). **인간의 조건**. 이진우 역, 서울: 한길사. (원저 1958 출판)
- Aristoteles (1997). **정치학**. 나종일, 천병희 역, 서울: 삼성출판사.
- Cambell, Timothy (2006). Bios, immunity, life: The thought of roberto esposito. *diacritics*, 36(2), 2-22.
- De Botton, Alain (2011).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 박중서 역, 서울: 청미래.
- Douglas, J. D (1996). **새 성경사전**. 김의원·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Esposito, R & 김상운 (2015). 번역적 민주주의. **문화과학**, 83, 390-415.
- Esposito, R & 김상운 (2015). 번역화와 폭력. **진보평론**, 65, 309-323
- Fong, W. M. 외 (2020). Nonpharmaceutical Measures for Pandemic Influenza in Nonhealthcare Settings—Social Distancing Measures, *EDI Journal*, 26, 2020.5. [https://wwwnc.cdc.gov/eid/article/26/5/19-0995\\_article](https://wwwnc.cdc.gov/eid/article/26/5/19-0995_article) 2020. 3. 6. 인출.
- Palmer, P. J (2012).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김찬호 역, 서울: 글항아리. (원저 2011 출판)
- Palmer, P. J (1993). *To know as we are known*. San Francisco: Harper & Row.
- Riesmanm, D (2011). **고독한 군중**. 류근일 역. 서울: 동서문화사. (원저 1950 출판).
- Terner, J. K. (1985). **신약교회교리**. 이요한 역. 서울: 침례회출판사.
- 중앙일보, 2020. 3.23. <https://news.joins.com/article/23736113>, 2020. 4.15. 인출.



---

Abstract

---

## A New Horizon of Understanding of the Faith Community Based on the Concept of Immunity between Ecclesia and Esposito

Seung-Joon Yang

Visiting Professor, Hyupsung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opening a new horizon in understanding the church, which is a community of faith, in the context of losing social credibility with selfishness and closedness, and spreading social distance due to the epidemic.

First, the concept and meaning of 'Ecclesia', a representative term for the church, was studied historically, biblically, and theologically, and Paul's intention was frequently used. Second, we explored the new horizons of the community of faith through a discussion of Roberto Esposito's *Communitas and Immunitas*, which unravel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and individual with an immunological concept.

Not only do we lose social trust for a variety of reasons, but it has been pointed out as a target of social distancing due to the spread of the epidemic virus and is facing a crisis of weakening or loss of the faith community of the "church".

Since the second epidemic has been predicted since Covid-19, the partial loss of daily life and the weakening and loss of meeting worship and fellowship in the church are inevitable.

The church in the future needs to transform and build a true community of faith that understands the concept of immunity and can lead the transformation of society while revealing the spirit and life scent of Jesus

Christ. To this end, innovation and practice of the paradigm of the community of faith appropriate to the rapidly changing times and situations is required.

In Chapter 1 of this paper, we propose innovation by pointing out the problems of the church and the faith community, which have lost social credibility, and which are the objects of social distance, with selfishness and closedness. Chapter 2 studies and analyzes the 'Ecclesia' used in ancient Greek to transform the paradigm of the faith community, and identifies the intention of the apostle Paul to apply the 'Ecclesia' to the church's faith community. Chapter 3-4 discusses the concept of immunity, summarizes the reinterpretation of Esposito, who looked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community through the concept of positive immunity beyond negative immunity. And It draws application points for transforming the faith community of various communities, individuals, and churches.

In conclusion, Chapter 5 restores precious gatherings and participation that are weakened and lost through the meaning of 'Ecclesia' and suggests expansion to higher level public gatherings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In addition, based on the re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immunity, we present unity in diversity and diversity in unity as alternatives to the church and community of faith.

#### 《 Keywords 》

Ecclesia, Community of faith, Roberto esposito, Immunity concepts, Communitas, Immunitas

- 투고접수일 : 2020년 05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06월 04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06월 25일